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전해옥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Hae Ok Jeon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13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 주관적으로 인식한 SNS 의존도, 본인의 SNS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beta=-.41, p=.009$)만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약 1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2.26, p=.049$). 여자대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beta=.42, p<.001$)과 긍정적 학업정서($\beta=.27, p=.010$)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약 2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5.19, p<.001$). 그러므로 남녀 대학생의 SNS 중독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SNS 사용시간을 줄이고 긍정적 학업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influence of a college student's academic emotions and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gender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30 college students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1, 2015.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in the case of male college students, only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beta=-.41, p=.009$) was understood as a variable with an influence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having approximately 16% power of explanation ($F=2.26, p=.049$) after controlling for age, daily average duration of using SNS, subjectively-perceived level of dependence on SNS, and one's own level of using SNS. In the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it was understood that the daily average duration of using SNS ($\beta=.42, p<.001$) and positive academic emotions($\beta=.27, p=.010$) were variables having an influence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having approximately 28% power of explanation ($F=5.19, p<.001$). Accordingly, to solve the psycho-social health problems related to male and female students' SNS addiction based on this research, it might be helpful for planning a program by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Keywords : Addictive behavior, Emotions, Interpersonal relations,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사용자가 16억 명을 넘어섰고, 한국 전체 국민의 54.4%가 SNS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1]. 2015

*Corresponding Author : Hae Ok Jeon (Cheongju Univ.)

Tel: +82-43-229-8993 email: beaulip@hanmail.net

Received March 10, 2016

Revised April 5,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의한 한국의 모바일 SNS 이용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94.8%), 30대(88.6%), 10대(86.5%) 순으로 2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SNS 이용자의 67.1%가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고,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이 65.2%,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55.4%로 조사되었다[2]. SNS는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전체 연령대 중 20대의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고, 특히 대학생 시기는 우정이나 친구의 반응 등에 민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SNS 사용은 대학생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 이용의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소통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이버폭력, 소통의 양극화, 허위정보의 확산, 정보의 과부하라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특히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대학생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대인관계지향성은 사회불안 및 SNS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불안은 SNS 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성적과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신체활동량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신체적 건강과 학습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6].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SNS 중독 및 대학생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학업문제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7].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이어 학업수행 및 전공에 따른 직업의 준비로 인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시기이다. 특히, 학업수행에 있어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학업정서가 노력, 자기조절, 심층적 인지 몰두와 같은 동기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긍

정적인 정서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적합한 사고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업정서가 실제적으로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7].

실제 한국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잉사용률은 29%로 중고생보다 높으며, 스마트폰을 소지한 대학생의 7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일종의 금단증상을 보인다고 하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잉사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8,9].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라 자기통제력과 의사소통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잉사용군에서는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이 스마트폰 과잉사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스마트폰 비과잉사용군에서는 자기통제력과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잉사용과 부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대학생 시기는 확대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며, 대인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Erikson[11]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과업인 친밀감 형성을 시도하면서 고립감도 경험하는 단계이다. 친밀감 형성은 성숙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친구관계, 이성관계,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발달과업의 이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인식은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서표현이 정서인식과 대인관계에 매개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정서표현은 학교와 같은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12]. 그리고 대인관계 지향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NS 중독성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3].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중요한 변수인 학업정서 및 대인관계 능력을 SNS 중독 경향성과 연관지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학생의 SNS 사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학업정서와 대인관계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대학생의 학업 및 SNS 중독 관련 심리적, 정신적 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 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관련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 대인관계 능력, SNS 중독 경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A시 소재의 일개 4년제 간호학부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별 분포를 고려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program[14]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medium)로 예측변수 7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89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130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정서

학업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측정하고자 So[15]가 개발한 학업정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학생들이 주로 경험하는 학업정서를 학습 상황별로 나누어 측정하며,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로 구분되며, 부정정서에는 지루함, 분노, 불안이 있고, 긍정정서에는 즐거움, 희망, 긍지가 있다. 문항 수는 각 하위 요인 당 6개씩 총 36문항으로 ‘확실히 아니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6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36-216점이며,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77-.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2-.89로 나타났다.

2.3.2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chleine 등[16]이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족감, 민감성, 의사소통, 개방성, 신뢰감, 친근감, 이해성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Moon[1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9이었다.

2.3.3 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h[18]의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은 SNS 과다 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18]. 본 도구는 총 11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44점이며, Oh[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7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배포된 150부의 설문지 중 총 143부가 수거되었으며, 설문내용이 미흡한 13부를 제외한 13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이 사전에 설명되었고,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설명서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중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자세히 공지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작성된 설문의 내용은 코드화하여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만 보관하였고, 익명으로 코드화한 자료와 설문결과는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다. 설문을 완료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답례를

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 관련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 대인관계 능력, SNS 중독 경향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 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

Table 1. Differences of Demographic and SNS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0)

Characteristics/categories	Gender		t or χ^2	p
	Male (n=52)	Female (n=78)		
	n or M±SD			
Age(years)	22.73±2.02	21.65±1.24	3.44	.001
Grade			2.40	.493
Grade 1	16(30.8)	16(20.5)		
Grade 2	13(25.0)	21(26.9)		
Grade 3	10(19.2)	22(28.2)		
Grade 4	13(25.0)	19(24.4)		
SNS using time (an average day)			21.71	<.001
None & <30 minutes	17(32.7)	9(11.5)		
30minutes-1 hour	14(26.9)	9(11.5)		
1-2 hours	12(23.1)	26(33.3)		
2-3 hours	6(11.5)	10(12.8)		
≥3 hours	3(5.8)	24(30.8)		
Reasons of SNS using (multi choices)				
To pass the time	23	23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17	28		
For pleasure	13	35		
For a life of a society	6	3		
Force of habit.	4	12		
In order to express yourself	0	2		
To not be excluded	1	2		
Subjective dependency of SNS using			15.71	.015
<10%	17(32.7)	15(19.2)		
20%	10(19.2)	6(7.7)		
30%	15(28.8)	16(20.5)		
40%	3(5.8)	9(11.5)		
50%	2(3.8)	7(9.0)		
60%	2(3.8)	11(14.1)		
≥70%	3(5.8)	14(17.9)		
Self perception for SNS using			8.82	.032
Very little use	11(21.2)	12(15.4)		
Use a little bit	21(40.4)	18(23.1)		
Make appropriate use	20(38.5)	43(55.1)		
Heavy users	0(0.0)	5(6.4)		
Sleep disturbance due to SNS			1.09	.297
Yes	16(30.8)	31(39.7)		
No	36(69.2)	47(60.3)		

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각각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관련 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였고, 2단계로 학업정서, 대인관계 능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관련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관련 특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t=3.44, p=.001$),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chi^2=21.71, p<.001$), 주관적으로 인식한 SNS 의존도($\chi^2=15.71, p=.015$), 본인의 SNS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chi^2=8.82, p=.032$)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에 있어, 남성에서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5.8%인 것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서,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30.8%로 높고 전반적으로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한 SNS 의존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이상의 의존도를 보이는 경우도 17.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SNS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적게 사용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적당하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3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17건), ‘즐거움을 위해’ (13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즐거움을 위해’ (35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28건), ‘시간을 보내기 위해’ (23건), ‘습관적으로’ (1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3.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 대인관계 능력과 SNS 중독 경향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 대인관계 능력과 SNS 중독 경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정서 중 부정정서의 불안이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72, p=.008$), SNS 중독 경향성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4, p=.016$)[Table 2].

3.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관련 변수인 연령,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 주관적으로 인식한 SNS 의존도, 본인의 SNS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고, 2단계로 학업정서, 대인관계

Table 2. Difference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N=130)

Characteristics/categories	Gender		t	p
	Male (n=52)	Female (n=78)		
	M±SD	M±SD		
Academic emotions				
Negative academic emotions	66.12±10.90	65.62±10.75	0.25	.800
Boredom	20.94±5.54	21.17±3.63	-0.28	.781
Anger	16.62±8.63	17.14±4.85	-0.44	.658
Anxiety	22.00±4.69	24.57±5.56	-2.72	.008
Positive academic emotions	59.60±12.93	62.88±10.51	-1.58	.118
Pleasure	19.62±3.21	18.94±3.25	1.17	.244
Hope	22.57±4.85	21.88±4.69	0.80	.426
Pride	23.56±5.06	24.86±4.94	-1.46	.148
Interpersonal relations	91.76±11.93	91.27±12.14	0.23	.822
SNS addiction tendency	17.81±6.28	20.38±5.57	-2.44	.016

능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명목변수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 주관적으로 인식한 SNS 의존도, 본인의 SNS 사용정도에 대한 인식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1단계 모형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았고, 2단계 모형에서 대인관계능력($\beta=-.41, p=.009$)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SNS 중독 경향성을 약 1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6, p=.049$).

여성의 경우 1단계에서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5, p<.001$), 여성의 SNS 중독 경향성의 약 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95, p<.001$). 2단계 모형에서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beta=.42, p<.001$)과 긍정학업정서($\beta=.27, p=.010$)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인지기능을 약 28% 설명하였다($F=5.19, p<.001$) [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SNS 사용 관련 특성 및 학업정서와 대인관계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대학생의 SNS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정신적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하루 평균 SNS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5.8%인 것에 비해 여성은 30.8%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한 SNS 의존도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70%이상의 의존도를 보이는 사람의 비율

Table 3. Effect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 (N=130)

Variables	SNS addiction tendency					
	Male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Age	.12	0.75	.456	.28	1.73	.091
SNS using time(an average day)(1= ≥ 3 hours)*	.16	1.07	.291	.12	0.78	.440
Subjective dependency of SNS using(1= $\geq 70\%$)*	.22	1.39	.170	.24	1.58	.122
Self perception for SNS using (1= Use a little bit)*	.17	1.07	.275	.26	1.78	.083
Negative academic emotions				.09	0.59	.562
Positive academic emotions				.20	1.41	.165
Interpersonal relations				-.41	-2.73	.009
F (p)		1.32 (.276)			2.26 (.049)	
R ² (ΔR^2)		.11			.28 (.17)	
Adjusted R ²		.03			.16	
Variables	SNS addiction tendency					
	Female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Age	-.01	-0.08	.937	.02	0.23	.815
SNS using time(an average day)(1= ≥ 3 hours)*	.45	4.09	<.001	.42	3.82	<.001
Subjective dependency of SNS using(1= $\geq 70\%$)*	.08	0.76	.451	.08	0.71	.481
Self perception for SNS using (1= Use a little bit)*	-.12	-1.11	.270	-.09	-0.88	.381
Negative academic emotions				-.01	-0.07	.947
Positive academic emotions				.27	2.64	.010
Interpersonal relations				.01	0.11	.914
F (p)		6.95 (<.001)			5.19 (<.001)	
R ² (ΔR^2)		.28			.35 (.07)	
Adjusted R ²		.24			.28	

*Dummy coded.

이 1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SNS 사용시간과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55.1%에서 본인은 “SNS를 적당하게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SNS 사용수준과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19]의 조사결과에서도 남학생(28.6%)에 비해 여학생(42.6%)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잠재적 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 장애, 금단, 가상 세계 지향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친교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였으며, 남학생은 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대학생의 SNS 사용의 주된 이유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즐거움을 위해’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대학생은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성별에 따라 SNS 사용 수준과 의존도, 사용이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추구, 자공심 표출, 추억공유가 SNS 사용의 주요 동기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대학생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SNS의 도구적 기능 때문에 SNS 중독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시간내성, 생활 장애, 금단/불안, 중단실패와 같은 중독 성향요인들이 대학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대인관계지향성은 SNS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를 과잉 사용할 경우, 자기 통제력과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10], 신체적 건강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6]. 그러므로 SNS의 사용량과 의존도가 높은 여자대학생의 SNS 사용관련 특성을 고려하고, SNS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독 경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 대인관계 능력과 SNS 중독 경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정서 중 부정정서의 불안이 여자대학생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SNS 중독 경향성도 여자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1]은 청소년과 대학

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부정적 측면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의 SNS의 높은 사용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가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Pekrun 등[22]은 학업수행에 있어,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학업정서가 노력, 자기조절, 심층적인지 몰두와 같은 동기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적합한 사고를 덜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여자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향상을 위해 불안과 같은 부정적 학업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습상황별 대처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만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약 1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과 긍정학업정서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약 2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Cho[23]의 연구에서도 불안, 1일 SNS 이용시간, SNS 이용목적, 성별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1.7%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처럼, 성별, SNS 이용시간,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SNS 중독 경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k과 Jeong[24]은 학습전략과 학업 적응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에게서만 부정적 정서가 성적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성에게서만 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녀 대학생의 SNS 중독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긍정학업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Cho와 Kim[2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사회성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의 대학생의 심리적 특

성과 SNS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로움과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SNS 중독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대안적 기능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Cho[23]의 연구에서도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요인이 SNS 중독 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NS 사용 관련 성별의 차이, 대인관계능력, 학업정서를 포함하여, 대학생의 심리적인 건강이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SNS 중독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그룹을 선정하기 위한 스크리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중독경향을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의학적, 심리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며, 특히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여자대학생의 경우 SNS 사용시간을 줄이고 긍정학업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학업정서에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SNS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차원의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대학생 스스로 SNS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며, SNS 사용과 관련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학적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함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과 긍정학업정서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남녀 대학생의 SNS 중독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SNS 사용시간을 줄이고, 긍정학업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반영한 SNS 중독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파악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불안과 같은 학업정서를 조절하여, 대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향상을 위해 대학차원의 치료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학생의 음주, SNS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성향을 조절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수를 포함한 대학생의 중독성 성향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변수의 구조적 관계의 파악 및 포괄적인 이해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eMarketer. Number of SNS Users Around the World. Available From: <http://www.itworld.co.kr/news/84806>, 2013.
- [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Survey on the Mobile Internet Usage Executive Summary. 2015.
- [3] Y. H. Lee, Utilization of SNS and Analysis of Important Issues of SNS in Korea,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
- [4] I. S. Lee, J. Y. Cho,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2623-2633, 2012.
- [5] H. Kim,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Tendency on SNS Commi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5, No.2, pp.11-26. 2014.

- [6] D. Choi, "Physical Activity Level, Sleep Quality, Attention Contro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long to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 pp. 429-43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429>
- [7] H. Lee, H. Kim,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3944-395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44>
- [8] W. K. Park, "The Mobile Phone Addic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2, pp.250-281, 2003.
- [9]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Survey for the Status of Mobile Phone Addiction. 2011.
- [10] H. Jang, Y. Kwag,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 Phone Over-usage: Focusing on Self-Control, Mental Health and Inter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 pp.146-15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46>
- [11]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London, Vintage, 1995.
- [12] H. W. Lee, D. M. Yeum, M. H. Le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ood Awar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0, No.2, pp.415-433. 2014.
- [13] H. E. Hwang, H. S. Kim, "Influences of Self-esteem,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 on the Tendency of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2, No.9, pp.233-253, 2015.
-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5] Y. S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Emotions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16] S. Schlein, B. G. Jr. Guernsey,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IRS). In J. Touliatos, B. F. Perlmutter, & M. A. Strauss (Ed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1990.
- [17]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19, No.2, pp.195-203, 1980.
- [18]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University, 2012.
- [1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Protect Youths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 Available From: <http://www.nypi.re.kr/contents/siteMain.do>, 2013.
- [20] W. K. Park, "An Explorative Study o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Using Psychological Variables as Predictor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7, No.1, pp.95-125, 2014.
- [21] E. K. Kim, Self Control of Mobile Phon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7.
- [22] R. Pekrun, T. Goetz, W. Titz, R P. Perry,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7, No.2, pp.91-105, 2002.
DOI: http://dx.doi.org/10.1207/S15326985EP3702_4
- [23] I. S. Lee, J. Y. Cho, "Factor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2623-2633, 2012.
- [24] W. Park, G. Jeong,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Negative Affect, and Academic Social Adapt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3, pp.490-499,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3.490>
- [25] G. Cho, Y. Kim, "Factors Affecting Smart 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1632-164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632>

전 해 옥(Hae Ok Jeon)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과학과(간호학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과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건강간호, 만성질환, 대학생의 우울